

각계각층 불자들의 부처님오신날 발원문

“‘큰 뜻’ 새기며 참회... 大悲의 문 여소서”

노옥섭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사생의 자부이시며 우리의 큰 스승이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 공무원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2년전 연합회 출범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환희심으로 받들고,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몸으로 실천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한 그 서원을 더 굳게 하고, 이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깨끗한 기운 가득한 사회를

함을 간직한 마음으로 발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육신내는 마음을 잘 다스려 이 땅에서 모든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밝고 깨끗한 기운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분별하는 마음을 잘 다스려 이땅에서 모든 대립과 반목을 없애고 서로를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고 따스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내는 마음을 잘 다스려 이땅에서 모든 폭력과 다툼을 없애고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사회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크신 위력으로 우리 공무원 불자들이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국가와 사회발전의 큰 일군이 되게 하시며, 불국정토 건설의 역군이 되게 하소서. 자비하고 지혜로운 부처님, 저희의 서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재성 (고려대장경연구소 선임연구원)



존귀한 분, 공양받을 만한 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맞이하며 몇 가지 마음의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삶을 바로 보고, 이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주신 부처님께 경배합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준 당

지혜·자비 완성위해 더욱 정진

신께서 가르쳐 주신 법에 경배합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깨끗이 정진하여 깨달음을 이루신 고귀한 스님들께 경배합니다. 스스로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하라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계정해(戒定慧)를 닦아 이 세상 그 어느 것에서도 자유로운 해탈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남을 지키는 것이며, 남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수행을 하고, 남을 지키기 위해 자비의 마음을 지나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 본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임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둘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고자 합니다.

조석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부장)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사찰을 쉽게 접근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여 집착과 번뇌가

장애인과 편견없이 살 수 있게

없는 대자유인이 될 수 있게 사찰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우리 모두가 부처님 품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정진할 수 있는 굳은 의지를 주옵소서. 이제는 사회복지 고액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 실천과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종사자들의 복지와 권익옹호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수 있게 살펴주옵소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맑은 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뜻을 모든 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길 부처님께 간절히 서원하오니 이 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살펴 주옵소서.

김대중 (조계종 포교사단장)



인류의 스승으로 오신 부처님께 등불을 밝히고 향을 사르며, 부처님과 인연되어 바른 진리를 알게 될 것을 무한히 기뻐합니다. 포교사의 사명은 정법 포교에 있으며 포교는 바로 불교의 생명이며 오늘 우리 포교사의 서원입니다. 우리 포교사도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심을 근

용기·꿈 갖게 하는 포교 확대

본으로 하는 연기의 세계관을 통해 이제 구원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어렵고, 잊혀지고, 고통받고 있으며, 힘들어하는 이웃의 곁에 포교사는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논산 훈련소에서 불교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한 구절의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합장하는 모습, 작은 '자비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얼굴에서 우리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불교를 통해 바른 삶을 설계하여 용기와 꿈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포교를 우리 포교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2546년 부처님 오심을 맞아 당신의 가르침을 축복하고, 늘 수행하면서 부처님 정법을 널리 퍼는 포교에 노력하겠습니다.

배동호 (법륜교수불자회회장·영남대 교수)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도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과 더불어 하나인 나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정 무정 모든 중생은 하나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며 진리임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전하고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 사바세계에 나투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오

쓰레기 하나라도 줄이는 자비행

신 뜻을 받들고 마음에 새기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세계인 생태계는 자연 순환 원리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난 세기 우리 생태계에 많은 침해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진·치 삼독의 결과로 자연 순환계가 그 궤도를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땅이 죽어가고, 대기와 물이 오염되고 생물종의 수가 줄어들고, 기후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이 지은 업보로 생각하고 크게 참회하고 쓰레기 하나라도 줄이고 줄이는 것이 우리 불제자들의 자비이고 보시이며 이것이 진정한 신행이라고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엄범순 (전국교사불자연합회 홍보부장)



부처님 오신날 맞이하여 전국의 교사불자와 파라미타 지도교사들은 부처님께서 사리에 나투신 큰 뜻을 다시 새기며 이 시대 이 땅에 부처님의 뜻을 꽃피우길 다짐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참회하고 발원하오니 대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초·중·고교의 교육취향들은 상승하여 현재의 100%에 가까우

부처님 정법따라 청소년 교육

나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 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된 이 때 교사불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는 서구적 물질문명의 발전 속에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서구적인 가치관과 이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천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잘못된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불자들의 수행과 정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사불자들은 학교현장에서 맑고 깨끗한 청소년들의 심성을 계발하여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자 불퇴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더욱 길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하오니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영자 (신수회장)



자비심으로 중생을 이끄시고 지혜와 복덕으로 모든 장애 없애 주시는 인연의 스승이신 부처님. 하늘과 땅 위에 나홀로 존귀하니 온 세상이 모두 고통에 휩싸여도 내마음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는 외치심이 온 우주에 울려 퍼졌으니 참으로 거룩하신 부처님의 공덕 미래세가 다하도록 법계에 두루 하오리다.

재난·질병없이 나라 태평하길

바라옵건대 시방세계가 두루 평화롭고, 조국의 국운이 날로 번창하고, 국민 화합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슬픈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남북통일이 되길 발원하옵니다. 10여일 후에는 한·일 월드컵 대회가 열립니다.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일체의 국민적 서원이 모두 이뤄져 범국민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감응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와 햇빛, 바람이 순조로운 온 국민의 생업이 풍요롭고, 재난과 질병 없이 나라가 태평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모든 죄업 참회하고 정진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려 하옵니다. 부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위신력으로 지켜 주시옵기를 발원하옵니다. 이 공덕 은누리에 회향하오니 모든 중생 바른길, 정법에 머물러 모두 해탈하게 하옵소서.

이지형 (조계사 중고등학생회장·마포교2)



항상 자식들로 인해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웃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치시는 노고보다 저희들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시는 스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부처님의 가피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문제, 부모님과의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고, 학업문제로 인

서로서로에게 좋은 벗 되도록

해 마음의 집이 가중되기도 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도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좋은 벗은 성스러운 길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또래의 친구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변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게 하시고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벗을 찾기 보다는 좋은 벗이 되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제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 화합을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물러나지 않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불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발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 맑으면 온누리가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조실 석주 주지 원혜

신도회장 후보 안승기

사부대중 일동

기도하는 도량 공부하는 도량 가족과 함께 하는 도량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우135-090) 전화 : 종무소 02)511-6070~4



송암한방병원 Korea Medical Center

부설 수중체조교실

성장클리닉, 비만클리닉, 마비·척추 클리닉, 한방안과클리닉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이천만 불자님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두손모아 축원드립니다.

의료진 : 오덕수, 김승수, 조남훈, 오기남, 이동수

임직원 일동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5-2 TEL : 02-530-8200 FAX : 02-592-8244 www.songamclinic.co.kr